

12/24/17

설교 제목: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누가복음 2 장 8-20

- (눅 2: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눅 2: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 (눅 2: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눅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눅 2: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눅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눅 2: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 (눅 2: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 (눅 2: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 (눅 2: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 (눅 2: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 (눅 2: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 이브입니다.

매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요란합니다.

길가도 성탄을 축하하는 불빛으로 모처럼 환합니다.

세상이 온통 밝아지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래로 Merry Christmas! 라는 단어가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다시 Merry Christmas! 외침도 들려옵니다.

성탄은 누가 막는다고 사라질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변의 반응에 대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2000 년전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의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눅 2: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눅 2: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늘에 별들만이 반짝이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입니다.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사자인 천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 밤중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는 깜짝 놀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해 천사가 말합니다.

(눅 2: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눅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껏 그들의 구원자가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에 오실 날을 학수고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처절한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 (눅 2: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눅 2: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눅 2: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 (눅 2: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눅 2: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관계로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아내  
마리아가 산달이었음에도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여관이 꽉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방을 찾지 못하고 마굿간에서 예수를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이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께 그리스도와 주라는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눅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주'란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자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며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진정한 구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주시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목자들에게 태어난 아기 중 온 백성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를 알려줍니다.

(눅 2: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싸여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있을 터인데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며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하늘과 세상의 반응들을 기록합니다.

먼저 하늘의 반응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자 홀연히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눅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들은 지극히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과 평화를 짝지워 노래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평화'란 'shalom'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평화를 말한대기 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반응은 땅으로 이어집니다.

(눅 2: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눅 2: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합니다.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갓 태어나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아 나섰고 천사가 말한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눅 2: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전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눅 2: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눅 2: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원문에는 18 절과 19 절 사이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한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했으나 그 이상 다른 어떤 반응도 없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눅 2: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를 통해 들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직접 보고 확인한 목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하늘의 천사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찬송이 땅의 목자들에게로 연결되어 메아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참된 평화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죄 사함받는 일입니다.

언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글을 소개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줄 구주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목자들은 곧장 달려가서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는 특권이 주어졌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러 보냅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들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는 특권을 받은 것과 똑같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아기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놀라워하지만 그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특권을 부여받은 자이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